

#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에 대한 본질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의 검토와 함께 -\*

노 명 환\*\*

## 차 례

- I. 머리말
- II.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기록관리
-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주의와 기록관리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역사주의, 특히 랑케(Leopold von Ranke)의 역사주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역사주의와 함께 발전하게 되는 기록관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기록관리의 발전을 보면 그의 역사주의를 보다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사주의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주의가 추구한 개별의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서 생성하여 발전(Entwicklung)해 가는 개별성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의 수단으로 도입된 사료비판 방법은 실증사학을 정립하는 촉매가 되었고 기록관리 발전을 촉진시켰다. 개별성이 생성·발전해 간 증거로서 사료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료는 곧 기록이었다. 따라서 역사주의 시대의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상호 관계의 전개과정을 잘 고찰하면 역사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역사연구의 과학성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필자는 기록관리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기록관리 역사는 오늘날의 기록학 또는 기록관리 실무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 또한 논구하고자 한다.

역사주의는 시대적으로 제국주의와 파시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배척되었으며 학문적으로는 포스트모던 담론들에 의해 그 이론적 가치들이 부정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연구 방법과 기록관리 각각의 영역이, 그리고 역사연구와 기록관리의 관계가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담론의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던 담론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본고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Essentialism)적 관점과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의 도입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에 관한 주제였다. 역사연구와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도 바로 사회적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료라는 용어와 기록의 관계를 본다면 후자가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기록은 사료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 II.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기록관리

### 1. 역사주의

역사주의<sup>1)</sup>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독자적인 개별의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와 더불어 그 본질을 갖추어 간다고 보는 사상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물이나 생명체라도 공간과 시간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다. 특히 시간의 조건, 시간의 경과 정도는 존재의 특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역사주의는 역사전개를 생성, 성장 그리고 소멸하는 유기체의 생애주기와 같은 과정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들 사상에 의하면 역사 속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는 생성·변화 과정 속에서 존재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시간과 다양한 공간의 좌표축에서 만나 형성되는 고유한 개별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역사주의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의 다양성과 고유성 그리고 유기체성을 인정하는 개체사상을 주장했다. 이 개체들은 상호 연계관계를 가져 상관성과 인과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역사주의자들은 이러한 개체가 생성하여 발전(Entwicklung)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성찰함으로써 세상의 그리고 인간존재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sup>

- 
- 1) 역사주의 (Historismus)라는 용어는 19세기 중엽부터 간혹 언급되는 정도로 사용되었고 20세기 초에 학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트뢴취 (Ernst Trötsch)와 만하임 (K.Mannheim) 그리고 마이네케 (Friedrich Meinecke)가 역사주의에 관한 논저들을 출간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그 후속으로 많은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사주의의 사상적 근거는 이미 17세기에 마련되었고 18세기에 그 형성 단계를 거쳐 19세기에 하나의 역사관 및 세계관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하순, 「역사주의사관」, 차하순 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1980, p. 37.
  - 2) 이렇게 볼 때 역사주의는 오늘날 구성주의 이론의 전형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주의 인식론은 논리적으로 구성주의 연구 방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구성주의는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입장이고 본질주의는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필자는 '구성주의'라는 용어대신에 더욱 형성과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형성주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구성주의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잡았고 구성주의라는 용어도 구성되어가는 과정의 개념을 충분히 내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명환,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문화적 갈등과 이문화 이해의 과제」, 『역사문화연구』, 제 30집 (2008), pp. 3-4.

이러한 역사주의는 낭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과 보편성 그리고 진보(Fortschritt)의 개념을 반대하고 개별인간의 감정, 정서, 비합리성이 개인의 실존과 역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보편이 아닌 개별의 가치를 중시하여 개체 개념을 발전시켰다. 낭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에 기초한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전통의 질서를 자연적인 것으로 옹호했다. 현재의 것의 원류가 되는 과거를 중요시하였으며 이 과거를 복원하여 전통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 전통의 중심에 선 대체 불가능의 개체 단위가 민족이었다. 역사주의는 이러한 낭만주의 운동과 대세를 보다 학문적으로 정치하게 체계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는 1774년에 출간한 저서 *eine Philosophie der Geschichte zur Bildung der Menschheit* (인류교육을 위한 역사철학)에서 개체사상을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그는 독일 역사주의 사상의 선구자가 되었다. 헤르더는 민족을 혹은 국가를 개별성의 본질적 단위로 설정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민족은 개별의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개별의 역사 경험을 통해 개별성을 소유하면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민족의 개별성을 그는 민족성으로 파악했다. 이 민족성은 민족문화의 근저를 이루었다. 헤르더는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펼쳐지는 그 시간과 공간의 조건, 역사과정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이 생활하는 지역의 토양, 기후, 지형 등에 대한 연구와 실제로 일어난 역사과정을 이해하는 일을 학문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했다. 그는 삶의 본질과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 속에 있는 각기 고유한 민족문화를 구체적인 역사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4)</sup>

3) 차하순, 「역사주의사관」, 차하순편, 『사관이란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1980, pp. 35-56.

4) J. G. 헤르더 저 (강성호 역),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책세상 2002; 강성호, 「헤르더의 사상에 나타난 '총체적 역사인식 - 개체성, 발전, 인간성' 사상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총』, 40, 41 합집 (1992. 06).

이러한 헤르더의 역사주의는 그 후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랑케(Leopold von Ranke), 드로이젠(Johann Gustav Droyse), 딜타이(Wilhelm Dilthey), 베버(Max Weber), 만하임(Karl Mannheim), 트뢰치(Ernst Troeltsch),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 등으로 이어지면서 독일 역사주의의 계보를 이루었다.<sup>5)</sup> 이 사상가들에 의해 역사주의 전통은 계승되면서 동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역사주의가 일정 부분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광포한 나치시대를 겪으면서 그 번민은 치열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이네케의 후기 저작들을 통해 잘 인지할 수 있다.<sup>6)</sup>

역사주의에 대한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음 절에서 필자는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인 랑케의 역사주의를 그의 실증사학의 기본토대인 역사연구와 기록관리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면서 조명한다.

## 2.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 그리고 기록관리의 발전

랑케(Leopold von Ranke)는 헤르더의 역사주의 인식을 계승했다. 그는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개체성이 세상 존재의 기초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서 각 역사의 시대는 개별의 가치를 갖고 개별의 개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시대는 직접적으로 신에게 연결된다(Jede Epoche unmittelbar zum Gott)”고 주장했다. 이는 각 시대의 개별의 가치는 그 다음 시대를 위해 예비단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직접 연결된 고유하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주의에 의거한 개체를 인식해 내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것이 그의 실증 역사학이었다. 랑케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역사전개를 통해 민족성과 민족문화가 구성되는 것이 라면 그 조건과 과정을 증거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

5)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크 G. 이거스 저 (최호근 역), 『독일역사주의』, 박문각 1992; 이민호, 『역사주의』, 민음사 1988 참조.

6) 이민호, 「마이네케의 역사주의의 세계. 그 형성과정」, 『역사학보』 제48집.

는 증거에 기초해서 민족에게 “본래 있던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를 재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민족성을 이해하고 민족문화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개체에 담겨 있는 신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길이었다. 과거에 대한 증거의 핵심은 각 시간과 공간의 좌표축의 접점이 중층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기록들이었다. 랑케에 따르면 역사주의에 입각한 개별성의 파악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며 역사의 증거인 기록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서술하는 작업이 역사학이었다. 또한 이 이를 수행하는 학자가 역사가였다. 그는 이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진흥하기 위해 기록의 수집 및 관리와 이에 대한 평가와 해석 방법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는 세미나 수업 제도를 도입하여 토론을 통해 수집된 기록의 진위여부를 평가하고 그 기록의 가치 및 해석 방법을 학습하였다. 이를 통해 “본래 있던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밝혀내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각기 개별은 고립된 개별이 아니라 전체와 연결된 개체였다. 기록은 개별 내부의 상호 관계, 개별과 개별의 관계, 개별과 전체의 관계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기록은 날개의 기록이 아니라 상호 맥락이 보존되도록 관리되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랑케와 그의 제자들은 실증 역사연구를 견인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했다. 이를 통해 사료수집과 편찬 그리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랑케는 기록에 의거한 실증사학의 의의를 1830년대에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현대사를 더 이상 본래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보고서나 동시대 역사가들의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서술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현대사는 목격자와 직접적인 증거문서의 조합 속에서만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7) Leopold von Ranke, Deutsche Geschichte I, p. 6; Volker Dotterweich, Heinrich von Sybel. Geschichtswissenschaft in Politischer Absicht (1817-1861), Göttingen 1978, p. 314.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의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년 10월), p. 370에서 재인용.

1848년 3월 혁명의 여파에서 등장한 제헌의회가 독일 전체의 기록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를 설립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랑케는 이 분야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국립기록보존소는 창설되지 못하였다. 그는 많이 실망하였지만 1858년 “역사와 사료 연구를 위한 위원회 (Kommission für Geschichts- und Quellenforschung)”의 위원장이 되고 그의 제자 지벨 (Heinrich von Sybel)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사료편찬 작업을 활발히 하였다. 특히 그와 지벨은 당시 침체되었던 “기원 후 500년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의 게르마니아의 역사기념 사료집 (MGH: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inde ab anno Christ quingentesimo usque ad annum millesimum et quingentesimum)” 편찬 사업에 중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활동은 그 작업 내용의 정교함으로 인해 독일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기념비로서 칭송되고 이웃 국가들 그리고 후대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sup>8)</sup> 이러한 가운데 지벨이 프로이센 국립기록보존소와 비밀기록보존소의 소장직을 겸임하게 되었을 때 이들 기록보존소들은 실증적 역사연구의 센터로 비약할 수 있게 되었다. 중세 이래 당시까지 독일의 기록보존소들은 역사연구를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현실정치를 위한 정보통계 및 권력의 정통성 확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sup>9)</sup> 따라서 당시까지 기록보존소는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해 개방되기 보다는 주로 비밀에 쌓인 행정기관이었다. 연구를 위해 개방되는 것은 예외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실증사학의 도입은 기록보존소의 기능을 연구를 위한 센터로 변화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벨은 그의 제자인 레만 (Max Lehman)을 프로이센 비밀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스승인 랑케의 뜻을 받들어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8) G.P. Gooch,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2nd ed., London 1952, chapter V.;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의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p. 371.

9) Ernst Posner,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3; 김현진, 「독일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제 14호 (2006. 10), p. 329.

gewesen)”를 입체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도록 기록들의 상호 맥락을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 방법을 고안하게 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1881년에 공포된 출처주의 원칙(Provenienzprinzip)과 원질서 원칙(Ursprüngliche Ordnung)이었다.<sup>10)</sup> 출처주의 원칙은 기록이 산출된 출처가 같은 것끼리 한데 묶어 기록을 정리하는 원칙을 말하며, 원질서 원칙이란 이렇게 정리된 원래의 질서가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sup>11)</sup> 이를 통해 역사 연구가들이 연구대상인 과거의 개별 내부의, 개별과 개별 사이의, 개별과 전체 사이의 내적 연관(inneren Zusammenhang)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에 의한 기록관리는 역사주의가 전체한 개체의 상관성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sup>12)</sup> 이 시기의 이러한 기록관리 발전의 역사는 또한 랑케와 그의 제자들이 역사주의 신념에 의거하여 실증사학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랑케의 역사학 방법론은 근대 역사학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

---

10) Paul Bailleu, "Das Provenienzprinzip und dessen Anwendung im Berliner Geheim Staatsarchive," in: *Korrespondenzblatt des Gesamtvereins des deutschen Geschichts- und Altertumsvereine*, 50: 193-194 (Oktober und November 1902); Friedrich Meinecke, *Erlebtes 1862-1901*, Leipzig 1941, p. 142; Regulativ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 vom 1. Juli 1881, in: *Mitteilungen der Preussischen Archivverwaltung*, Heft 10 (1908), p. 16-20.

11) Theodore R. Schellenberg (이원영 옮김), 『현대기록학개론』, 도서출판 진리탐구 2002, pp. 190-195.

12) 물론 이는 행정 기관이나 여타 기관의 기록들을 이관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었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은 낱개로 수집된 메뉴스크립트 기록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주의와 기록관리

#### 1. 포스트모더니즘과 랑케의 역사주의

랑케의 역사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 철저히 비판되고 부정되기에 이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랑케의 역사주의가 담고 있는 전제인 개체의 단위로서의 민족과 그 연구 방법으로서의 실증사학의 가치가 철저히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그가 추구한 민족과 국가를 역사연구의 단위로 한 정치사의 거대담론, 그리고 그의 연구방법인 실증사학의 과학성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함께 등장하였다. 이성의 역할과 가치에 기초하여 '보편적인 선'의 진보를 구가하고자 하는 계몽주의는 허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허구의 구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계몽의 보편성을 결정하고 개체들은 강제로 이에 편입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편입되지 못할 때 개체들은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 근대성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대성의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구조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체의 해방을 위하여 이성과 근대성의 해체를 주장하며 계몽주의를 경멸한다. 포스트모던 담론은 개체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조건 속에서 각각의 고유한 개별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앞에서 설명한 역사주의와 일정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던 담론도 궁극에 있어서는 개체 존중 사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계몽주의와 보편성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기존질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몽주의와 이성을 적대시 했던 역사주의와는 근본의 차이가 있다. 특히나 역사주의가 후원했던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은 인류비극의 주범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근원적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이념이요 체제였다. 물론 포

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역사주의에서만 찾은 것이 아니라 또한 본원적으로 이성과 계몽주의의 허구 메커니즘에서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개별성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만 역사주의가 만들어 온 민족과 국가를 개체의 단위로 하는 거대 담론을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한다. 개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사주의가 발전시킨 실증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조롱한다. '언어로의 전환 (linguistic turn)'이라는 철저히 인식의 상대성 원리를 제시한다.<sup>13)</sup>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지난 역사 속의 역사주의와 논리적 차원의 역사주의를 구분하면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가 그 개별의 단위를 논리상 필연적으로 민족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낭만주의 시대의 거대담론 가치인 민족과 결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논리상으로만 본다면 역사주의가 필연적으로 민족주의의 토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주의가 설정할 수 있는 개체의 단위는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열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역사주의가 발전시킨 실증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이라는 가치와 개념을 오해 없도록 정확하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실증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은 지향점이지 절대개념이 아니었다. 셋째, 개별성과 보편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사주의가 논리적으로 내포하는 관점들을 세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던담론 사이에는 공통점들이 존재하고 두 개의 사상적 체계는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푸코가 광기, 성, 감시와 처벌 등을 규명함에 있어서 수많은 기록보존소들을 전전하면서 역사적 연구를 수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랑케의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러한 방식

13) 이에 대해서는 김기봉의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Hayden White, *Topics of Discourse*, Baltimore 1978 참조.

14) 그가 추구하는 학문의 고고학적 방법은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체에 대한 이해를 각 시대의 증거인 기록에 의거하여 당시의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록보존소의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언급하였다. 기록보존소를 이용한 바 기록보존소의

으로 비교하는데 있어서 실제 역사에서 형성된 역사주의의 문제점을 치열하게 극복하고 또 오해된 점들은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랑케 역사주의의 거대담론 문제와 실증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 문제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제에 대해 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상술하고자 한다.

## 2. 역사학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 1) 역사주의가 내포하는 거대담론의 극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사주의는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체가 유기체와 같이 생성·발전하여 공간과 시간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개체의 단위가 개인인가 아니면 어느 집단인가 하는 의문이 대단히 중대하게 제기된다. 역사주의 논리의 개연성에서 볼 때 개체의 단위는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할 수 있다.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중첩되면서 존재할 수 있다. 이 개체의 단위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주의의 논리에서 사회적 존재의 정체성은 다층적 다면적으로 중첩되어 있고 시·공간의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역사주의의 개체단위에 대한 논리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역사주의는 앞의 헤르더에서 보듯 개체의 단위를 민족으로 고정시켰다. 인간 개인은 민족으로서 본원적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시·공의 변화와 함께 발전은 있지만 이 정체성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의 역사주의는 철저히 본질주의(Essentialism) 입장을 표방했다. 그 배경은 당시의 시대상인 낭만주의의 민족주의 가치관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것은 역사주의 운명에서 엄청난 모순이고 비극의 씨앗이다.

---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을 하였다. 미셸 푸코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p. 182-190.

랑케는 헤르더를 계승하면서 역사주의의 이 왜곡된 본질주의 측면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족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개척하였다. 여기에서 랑케사학은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하는 정치사 중심의 실증사학 거대 담론을 축적해 갔다. 이 거대 담론은 민족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의 역사를 통해 비극의 물줄기가 흐르게 했다. 개체의 유기체적 생성, 발전, 상관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는 사회적 다위니즘, 사회유기체설 등과 결합되어 제국주의와 파시즘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 체계로 작용하였다.

기록보존소는 실제 역사에서 왜곡된 역사주의의 민족을 단위로 하는 개체의 거대담론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립기록보존소들이 창립되었던 배경과 그들의 활동이 그러했다. 많은 경우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동원되었다.<sup>15)</sup> 국가의 관료제도가 문서(기록)를 매개로 강화되었고<sup>16)</sup> 기록관리는 이들 문서를 관리·보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역사연구는 이러한 기록들에 의존했다. 기록보존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거대 담론의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의 명분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원천으로서도 작용했다. 이러한 측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17)</sup>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민족을 개체 단위로 하는 거대 담론은 역사주의의 논리적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역사에서 왜곡되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역사주의는 본래적으로 개체의 단위, 즉 정체성

- 15) Trudy Peterson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제 4호 (2001).
- 16) 이에 대해서는 베버(Max Weber)의 관점 참조. 유광호, 『관료제도론: 이론, 역사,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1995, pp. 60-74; Volker Heins, *Max Weber zur Einführung*, Hamburg 2000, pp. 83-94.
- 17)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8, p. 4; 케텔라르는 나치가 유대인 박해를 위해 유대계 혈통을 밝혀내고자 했을 때 프로이센 비밀기록보존소의 기록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통렬하게 고발했다. Eric Ketelaar, "Archival Temples, Archival Prisons: Modes of Power and Protection", *Archival Science* 2 (2002), pp. 221-238, p. 226.

에 대해서 본질주의 입장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 입장을 지녔다. 역사주의 논리의 본원성이 역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다면 역사주의는 민족 정체성에 본질주의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성주의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역사주의 본래의 논리에서 본다면 민족이나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구성주의 입장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주의 논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개체가 발전하는가 하면 그 개체를 인식하는 인식자도 변하기 때문이다. 인식 대상으로서의 개체와 인식자로서의 개체의 관계도 변화한다. 개체의 정체성 단위는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얽혀 있고 지속적으로 변한다. 지속적인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굳이 국가 역사를 그리고 국립기록보존소를 거대 담론으로 심판하여 해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들도 여러 개체의 정체성 단위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인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과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객관성 문제

### 가) 역사가의 주관성과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객관성 문제

포스트모던 담론은 역사학이 근본적으로 객관성에 기초한 과학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학문성을 내세워 역사학을 역사전문가들의 기득권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서 역사주의 실증 사학이 비판의 주 대상이다. 포스트모던 담론은 역사는 역사가가 언어로 되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언어의 행위로서 해석을 하여 서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언어는 명료한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주관적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들은 역사 연구와 서술 행위를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sup>18)</sup> 역사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학문이 아니고 언어적 행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랑케와 그의 제자들이 기록(사료비판)에 의거하여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를 재현하는 실증사학을 주장했지만 그 기록이 언어로 되어 있고 그 기록을 해석하고 그에 기초해서 역사서술을 하는 것이 언어 행위인 한 그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18) Hayden White, *Topics of Discourse*, Baltimore 1978, p. 47.

따라서 역사연구 및 서술행위를 하나의 과학으로 인식하는 것은 허구이며 이러한 허구적 인식은 역사전문가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역사주의 전개와 기록관리 발전의 상호관계에 의거한 역사학은 그 존립기반을 잃을 듯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언어로의 전환’ 인식은 역사주의 전개와 기록관리 발전의 상호관계에 의거한 역사주의 실증사학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랑케의 실증사학에 대해서는 랑케시대에 이미 역사주의 내부에서도 있었다.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주의 사상가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드로이젠은 환관적 객관성 (eunuchische Objektivität)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조소하였다.<sup>19)</sup>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의 의미를 실증사학을 위한 모토가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어 큰 주목을 끈다. 김기봉은 랑케의 모토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에서 본래는 무당파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증사학을 위한 표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무당파성을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성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이 표어는 역사가가 편파성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역사를 연구·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기봉은 랑케의 논점을 역사신학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역사 속의 개체에는 개별의 고유한 신의 뜻이 들어 있는데 역사가는 이 개개의 것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랑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랑케가 말한 “모든 시대는 신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 (Jede Epoch unmittelbar zum Gott)”는 위의 역사신학적 입장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구절

19) Johann Gustav Droysen, *Historik. Vorlesungen über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Geschichte*, ed. Rudolf Hübner, 5th ed. (München 1967), p. 287, 최성철, 「드로이젠과 역사주의」, 『한국사학사학회 2011년 전국학술대회 (제99회 발표회) 발표 자료집』, p. 41. 드로이젠의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랑케에 대한 오해에서 보다는 랑케의 모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비실현성에 대해, 과거에 대한 인식자의 인식과 결부되어 있는 역사연구와 서술의 필연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라고 김기봉은 본다.<sup>20)</sup>

이러한 비판들과 다른 측면의 해석들을 보면서 필자는 역사전문가들의 실증사학을 통한 부당한 기득권은 부정되어야 하고 그러나 실증사학의 객관성과 과학성 추구의 본질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역사학은 개방되어야 하고 그 수행 주체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실증사학의 가치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랑케는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그 과거의 시기에 산출된 기록을 증거로서 수집하고 평가하여 해석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증거로서 기록이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증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 과정에서 파생한 것이다.<sup>21)</sup> 그러나 이 제안은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에 대한 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본래 있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

20) 김기봉,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호서사학』 제 39집, pp. 129-144. 김기봉의 이러한 해석은 학계에 랑케 역사학에 관하여 대단히 본질적인 관점의 토론편의 물꼬를 텃다고 본다. 다만 필자는 현재의 이해 역량의 한계 속에서 랑케의 모토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는 분명히 본래 있던 그대로를 정확하게 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적으로 함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본다. 랑케는 이러한 모토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에 그만큼 이를 지향점으로서 강조했다고 보인다. “모든 시대는 신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 (Jede Epoch unmittelbar zum Gott)”는 그의 주장도 개체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연구하는 역사는 현재의 인식체계를 떠나서 그 시대의 가치·인식 체계로 들어가서 그 개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을 본고에서 살펴보는 랑케와 그의 제자들이 그 시대의 증거인 기록에 대한 관리를 위해 쏟는 깊은 열정 속에서 확인한다. 이러한 실증사학적인 연구방법이 역사 속의 신의 뜻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될 수 있었겠다. 역사 속에 신의 뜻이 들어 있다는 것은 랑케에게 있어서 이미 기본 전제다. 그 신의 뜻을 읽는 방법으로서 실증사학이 그의 주 관심이었다. 무당파성은 실증사학의 객관성 목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21) 이러한 기록들이 본래적인 증거로서 자격이 있다. 물론 이 증거를 가지고 과거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증거들이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없고 과거전체를 그대로 나타내 줄 수도 없다. 그 시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쓰여진 기록들은 앞의 기록들에 대한 보완적인 그리고 부차적인 가치를 갖는다.

역사학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연구 및 서술 작업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복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작업의 결과들이 상호 비교·검토·토론될 수 있다. 필자가 이미 주장한 바 있는 역사학을 위한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하다.<sup>22)</sup> 이러한 전체의 시스템을 과학적인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다고 해서 과거가 그대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은 학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역사학의 행위를 역사가 개인의 언어적 행위로, 즉 '언어로의 전환으로' 환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자는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증거에 기초한 재판과정을 예로 들겠다. 재판장에서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증거를 해석하여 논고한다. 변호사 또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호를 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용하는 증거는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 증거들은 단수의 것일 수도 있고 복수의 것일 수도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증거와 관련해서도 논리를 편다.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 관건은 그 증거가 진실된 것이냐 하는 점이다. 둘째는 검사와 변호사의 해석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다. 그 다음에 판사가 이들을 기초로 해서 제대로 판결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검토 사항들이 수용될 때 사람들은 그 재판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아들였다 해서 그 재판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본래의 모습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이러한 방식의 재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존재 의미를 갖는다. 이 재판과정은 증거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랑케의 실증사학이란 바로 이러한 재판과정과 같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의 역사학 결론은 재판과정처럼 몇 번의 절차로 완결되지 않

22)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호 (2011년 09월).



는다.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학을 위해 끊임없이 증거로서의 기록을 관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랑케와 그의 제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관리를 위해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쏟았다. 기록관리의 양과 질 그리고 방법에 따라 역사학은 큰 영향을 받는다. 기록을 제대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겠다.

랑케에게 있어서 기록이란 자연과학적 객관성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증거로서 해석과 기억의 매개물이었다. 이 매개물인 증거가 불편부당한 진본성을 갖도록 수집·보존되어야 했다. 이렇게 볼 때 랑케의 실증사학은 과학적 방법을 추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역사학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해체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역사주의 실증사학은 포스트모던 담론과 더불어 피어난 새로운 역사학 방법들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나) 기록관리의 주관성 문제와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객관성 문제

그렇다면 증거로서의 기록은 역사가에게 어떻게 공급되는가? 일반적인 경우 기록보존소의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을 수집하여 평가하고 정리 기술하여 제공한다. 또는 우연적으로 살아남은 기록들도 있다. 이들 모두는 기록유산을 형성한다.<sup>23)</sup>

아키비스트들이 과거에 산출된 모든 기록들을 다 수집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작용한다. 모든 기록들이 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들이 다 존재한다 해도 물리적인 환경조건 때문에 다 수집할 수는 없다. 아키비스트는 선

---

23) Hans Boom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pp. 75-76; Ahasver von Brandt, *Werkzeug des Historikers. Eine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n Hilfswissenschaften*, Stuttgart 1958, pp. 58-60.

택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 이 선택적 수집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작용할 수 있다. 기록학 및 기록관리 전문가 붐스(Hans Booms)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인간인 아키비스트도 사회경험에서 축적한 관점에 의거하여 선택적 수집활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24)</sup> 기록을 수집한 후에 평가와 정리·기술하는 과정에서도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 기록관리 과정은 복수의 아키비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수의 관점들 하에서 이루어진다.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데이터를 ‘사료’로 변환하는 구성적 행위 (constructive act)를 수행한다.”<sup>25)</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록들이 “본래 있던 그대로 (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작용하기에는 큰 문제를 가진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포스트모던 담론의 언어로의 전환 논리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설명한 재판과정처럼 온전히 객관적으로 증거인 기록들을 습득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가장 효율적으로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놓여있다. 그렇다면 이 기록관리 과정을 최선의 방법으로 실현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역사가는 이렇게 제공되는 기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여 역사서술을 한다. 그렇다면 역사의 해석과 서술은 많은 부분 기록관리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역사의 연구와 서술 작업의 일부가 이미 기록관리 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다.<sup>26)</sup>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가와 아키비스트 사이에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

24) Hans Booms, op. cit., pp. 73-74; 기록관리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또한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 2001, pp. 137-139 그리고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 p. 24 참조; 붐스 (Hans Booms)가 의존하는 ‘인간의 사회적 경험이 개인의 행위 정향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2nd ed. Tübingen, p. 168; Jürgen Habermas, *Erkenntnis und Interesse*, Frankfurt/Main 1968, pp. 242, 260; Jürgen Habermas,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Tübingen 1967, p. 34.

25) Hans Booms, op. cit., p. 76.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에서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랑케와 그의 제자 시대에는 많은 경우 역사가들이 직접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관리와 역사연구 작업은 크게 분화되었다. 그 분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록관리와 역사연구 작업의 이 두 과정을 묶을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지 못하고 둘 사이에는 연속성이 아주 약하게 되었다. 역사가들은 어떠한 기록관리 과정을 거쳐 자신의 기록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sup>27)</sup> 역사가로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양자 사이에 유기적인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기록보존소가 역사학을 위한 공론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sup>28)</sup> 그런다고 해서 기록관리 과정의 주관성 문제와 역사가의 역사연구·서술 과정의 주관성 문제가 해소될 것은 아니나 앞서의 재판과정처럼 역사학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3) 역사학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만남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역사학계에서 거대담론의 극복 방안으로 미시사, 인류학적 문화사, 구술사, 일상사 등이 활발하게 개척되었다.

기록학에서는 기록보존소가 거대담론을 위한 정당화 역할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사회발전의 토대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기록보존소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 (culturally sensitive archives)' 또는 '공동체 기록보존소

26) Theodor Schieder, *Geschichte als Wissenschaft*, pp. 13-15; Klaus Pabst, "Geschichtsforschung," *Die Weltgeschichte* (Freiburg 1971), pp. 38-39.

27) Hans Booms, op.cit., pp. 80-81; Theodor Schieder, "Angewiesen auf zufällig Bewahrte. Die Geschichte und die Sozialwissenschaft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Nr. 271, 21 November 1967, pp. 13-14.

28)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호 (2011년 09월),

(community archives)' 개척 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문적 이론화 작업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29)</sup>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란 문자기록이 아닌 문화인류학적 차원의 기록, 민속기록, 구술 기록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관을 말한다.<sup>30)</sup> '공동체 기록보존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기록화 작업에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센터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기록보존소'는 앞으로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요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1)</sup>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 운동은 문자기록 중심주의를 혁파하고 기록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문자외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억의 수단들을 기록의 개념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문자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게 과거에 대한 증거와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를 소유하게 해주고 있다.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에 문자기록이 없는 지역은 증거와 기억과 역사가 존재할 수 없는 야만의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식민주의의 정당화해주는 논리로도 기능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민감한 기록보존소' 운동은 탈식민주의, 탈유럽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기록보존소들은 기록의 증거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기억을 위한 매개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29) 예를 들어,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2009;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May 2005);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 (2008).

30) 예를 들어, Kelvin L. White, "Meztizaje and remembering in Afro-Mexican communities of the Costa Chica: implications for archival education Mexico", *Archival Science* (2009); Anne Gilliland, / Kelvin L. White, Perpetuating and extending the archival paradigm: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oles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pedagogy.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5(1), 2009.

31) Isto Huvila, *Ibid.*.

기록보존소들이 포스트모더니즘 비판들과 더불어 시작된 역사학의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물들인 미시사, 일상사, 문화사, 구술사 등과 만나게 되면 큰 효율성과 풍부한 업적들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랑케 역사주의의 실증사학과 민족과 국가 중심의 기록보존소가 만나 거대 담론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면 이제는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는 역사학과 기록관리가 만나 개별성 본래 모습을 그려내는데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주의는 앞에서 거듭 설명했듯이 논리상 본원적으로 개체의 단위가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중첩되어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새로운 역사학이나 기록관리의 목표는 역사주의 원래의 세계관과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역사학과 기록관리는 역사주의 본래의 세계관을 실현하는 실증사학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본래의 본질을 찾은 역사주의가 상보관계를 이루며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역사학과 기록관리는 그들의 목적과 방법을 증거, 기억, 정체성, 공동체의 형성에 둔다. 앞에서 본래의 역사주의는 논리상 지속적으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중첩의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을 전제하는 구성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패러다임 변화시기의 역사학과 기록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필자는 기록보존소를 다룬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는 하버마스 개념의 공론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이 공론장은 하버마스가 의미하는 공정한 의사소통이 전제된 곳이다. 이를 통해 역사가 개인의 언어로의 전환 행위를 넘어서 아키비스트들의 주관적인 기록관리 행위를 넘어서 '간주관성의 소통 (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이 이루어지는 공론장 역사학을 추구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공동체(커뮤니티) 아카이브즈 운동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이미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주의는 늘 개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체로부터 유리되어 고립된 개개의 존재에 대한 상대주의 비판을 두려워했다. 개별은 공론장을 통해 지속적인 '간주관성의 소통'을 이루어 가면서 보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역사주의가 개체에 보편성이 깃들여 있다고 보고 신의

뜻으로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다면 세속화된 오늘날 개체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중첩된 정체성의 끝없이 지속적인 간주관성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이를 ‘역사주의적 구성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패러다임 변화 시기 기록보존소의 활동과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만남은 거대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론장의 역할로 제도화되면서 역사가 개인의 언어로의 전환으로 환원되는 역사연구 및 서술의 문제점을 개선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구성주의의 목표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간존재의 모든 부면에서 전쟁과 평화, 행복과 불행의 많은 측면이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실제의 역사에서 역사주의는 닫혀진 민족주의 정체성을 본질주의 측면에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의 비극들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역사주의 본래의 논리에서 볼 때 정체성은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중첩되어 열려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구성된다. 체계적으로 열려있는 정체성이다. 본래의 역사주의를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위해 새롭게 불러내고 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할 때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던 담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생과 상생의 변증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스트모던 담론의 비판으로 제기된 랑케 역사학의 해체문제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론장에 기반을 둔 실증사학은 증거와 기억,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의 지속적인 과업을 견인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성호, 「헤르더의 사상에 나타난 '총체적 역사인식 - 개체성, 발전, 인간성' 사상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사총』, 40, 41 합집 (1992. 06)
- 김기봉,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호서사학』 제 39집
- 김기봉외 지음,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 푸른역사 2002
-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의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년 10월),
- 노명환, 「공론장으로서 기록보존소의 역할: 그 역사와 현황,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 역사학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10호 (2011년 09월)
- 유광호, 『관료제도론: 이론, 역사,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1995
- 이민호, 「마이네케의 역사주의의 세계. 그 형성과정」, 『역사학보』 제48집
- 이민호, 『역사주의』, 민음사 1988
- 차하순, 「역사주의사관」, 차하순편, 『사관이란무엇인가?』, 도서출판 청람 1980
- 최성철, 「드로이젠과 역사주의」, 『한국사학사학회 2011년 전국학술대회 (제 99회 발표회) 발표 자료집』
- Bailleu, Paul, "Das Provenienzprinzip und dessen Anwendung im Berliner Geheim Staatsarchive," in: Korrespondenzblatt des Gesamtvereins des deutschen Geschichts- und Altertumsvereine, 50: 193-194 (Oktober und November 1902)
- Bastian, Jeannette and Alexander, Ben (ed.),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2009

- Booms, Hans,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a documentary heritage: issues in the appraisal of archival sources", *Archivaria* 24 (1987)
- Brandt, Ahasver von, *Werkzeug des Historikers. Eine Einführung in die historischen Hilfswissenschaften*, Stuttgart 1958
- Derrida, Jacques,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8
- Gilliland, Anne, / White, Kelvin L., Perpetuating and extending the archival paradigm: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oles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pedagogy. *InterActions: UCLA Journal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5(1), 2009
- Gooch, G.P., *History and Histor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2nd ed., London 1952, chapter V.
- Dotterweich, Volker, Heinrich von Sybel. *Geschichtswissenschaft in Politischer Absicht (1817-1861)*, Göttingen 1978
- Droysen, Johann Gustav, *Historik. Vorlesungen über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Geschichte*, ed. Rudolf Hübner, 5th ed. (München 1967)
- Foucault, M. (이정우 옮김),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 Heins, Volker, *Max Weber zur Einführung*, Hamburg 2000
- Herder, J. G. 저 (강성호 역),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책세상 2002
- Huvila, Isto,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8.1 (2008)
- Iggers, Georg G. 저 (최호근 역), 『독일역사주의』, 박문각 1992
- Ketelaar, Eric,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 Archival Science 1: 2001, pp. 137-139 그리고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
- McKemmish, Sue / Gilliland-Swetland, Anne / Ketelaar, Eric, "Communities of Memory': Plu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May 2005)
- Meinecke, Friedrich, Erlebtes 1862-1901, Leipzig 1941
- Peterson, Trudy, (이상민 역),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제 4호 (2001)
- Ranke, Leopold von, Deutsche Geschichte I  
Regulativ für die Ordnungsarbeiten im Geheimen Staatsarchiv vom 1. Juli 1881, in: Mitteilungen der Preussischen Archivverwaltung, Heft 10 (1908)
- Schieder, Theodor, Geschichte als Wissenschaft, pp. 13-15; Klaus Pabst, "Geschichtsforschung," Die Weltgeschichte (Freiburg 1971)
- White, Hayden, Topics of Discourse, Baltimore 1978
- White, Kelvin L., "Meztizaje and remembering in Afro-Mexican communities of the Costa Chica: implications for archival education Mexico", Archival Science (2009)

<국문초록>

역사연구와 기록관리 상호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역사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 랑케의 역사주의와 실증사학에 대한 본질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의 검토와 함께 -

노 명 환

본고에서 필자는 랑케의 역사주의가 무엇이며 그 인식 및 실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역사주의의 전개와 기록관리 발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포스트모던 담론에 비친 역사주의를 살펴보고 그 비판의 극복 방향과 오해된 측면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역사주의 시대의 기록관리는 무엇이고 패러다임 변화를 피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록관리는 무엇인지 성찰했다. 이 가운데서 역사주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상보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특히 랑케와 그의 제자 지벨 그리고 지벨의 제자 레만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노력은 역사주의 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었다. 역사주의 사상에 의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실증사학이었으며 실증사학은 기록관리 발전을 필요로 하였다. 기록관리 발전은 역으로 역사주의 사상의 전개와 실천을 뒷받침해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극을 받아 역사학과 기록학은 패러다임 변화를 피하고 있으며 이 양자의 공론장을 통한 만남 속에서 역사주의 실증사학은 오늘날 다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역사주의, 실증사학, 랑케,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 변화

<Abstract>

**Historicism and Postmodernism seen from the  
Paradigm Shif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Historical Studies and Archival Management  
- with the Views based on the Essentialism and  
Constructivism -**

Noh, Meung-ho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explain the essence of the Ranke's historicism. Ranke established the nation as the unit of individuality of his historicism. So the national history was the essential one for him. Ranke developed the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to realize his historicism based on historical resources. Ranke's historical methods developed the archival management and archives. His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was based on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historians and archivists.

Postmodernism criticized the historicism and the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of Ranke. Postmodernism saw the macro discourse of the historicism based nationalism as the cause of the mankind tragedy in the history. Postmodernism regarded the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as the fabrication. It suggested the theory of 'linguistic tu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stmodernism historical science and archival science realized the paradigm shift. The micro history, everyday life history, cultural history, oral history became stream. The archival scientists and archivists developed the 'culturally sensitive archives' and 'community archives'. Now the historical science and archival science of the paradigm shift are able to develop historicism and the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of the new dimension.

Key word : Historicism, Positivistic Historical Science, Ranke, Postmodernism, Paradigm Shift

투고일 : 2012년 2. 04 / 심사일 : 2012년 2. 04 ~ 2. 17 / 게재확정일 : 2012년 2. 20

---

**필자소개** : 노명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이며 서양현대사, 유럽통합사, 냉전시대의 독일사와 한국사, 서양 기록관리의 역사, 서로 다른 문화 이해와 국제지역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연락처: hoannoh@hanmail.net)